한마음선원 본원, 보살 임원단 수련회 성료

지역장 등 소임자 300명 참여
혜수 스님 "주인공으로 해 나가라"
서로 신행 경험 나누며 교류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보살 신행회는 3월 7일부터 8일까지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제1회 한마음선원 본원 보살 임원 수련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수련회 장소로 출발 전 본원 대중 스님들과 보살 임원들이 법당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주지 혜솔 스님)에서 수행하며 봉사하는 신행회 소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신행 경험을 나누는 교류의 장이 열렸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보살 신행회는 3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동안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제1회 한마음선원 본원 보살 임원 수련회'를 개최했다.

'슬기로운 보살생활, 푸르게 살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지역장·그룹장·총무 등 신행회에서 소임을 맡아 수행과 봉사를 이어 가고 있는 본원 보살 임원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수행의 의미를 되새기고 신행 경험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7일 열린 입재식에서 참석 대중들은 '진실한 보살행'을 주제로 한 대행 선사의 육성 법문을 통해 수행자의 삶과 보살행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행 선사는 "진실한 행을 하는 데서, 실천을 하는 데서 이게 진실한 보살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보살 아닌 보살이 돼야 한다"면서 "이 도리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자꾸자꾸 모든 것을 다 자기의 마음 근본에 내려놓고 일임하고 생각을 돌려 이익하게 놓고 감사하게 놓는다면, 이것이 공부하는 데도 나를 깨닫는 데도 지름길이 되고 남을 위해서도 봉사가 되며 보살행 실천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 대중들은 보살 신행회 임원단의 역할이 단순한 직책이나 소임이 아니라 수행과 실천의 자리임을 마음 깊이 새겼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임원단 여러분 모두 수련회를 준비하며 감사 노트를 쓰고 큰스님 법문을 마음에 새겼을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마음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몽땅 내려놓고, 주인공이라는 힘으로 해 나가는 감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현준 신도회장은 축사에서 "내년은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이번 수련회가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다시 가슴 깊이 새기고 화합과 소통을 통해 마음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변화와 실천을 이끌어 가는 소임자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기정 신도회 수석부회장도 축사에서 "보살 신행회는 창단 50주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큰스님께서 내려주신 '마음 심(心)' 자를 근본으로 삼아 조직되었고, 현재는 서울·경기 40여 개 지역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 '슬기로운 보살생활'이라는 주제처럼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 대중들은 김혜경 신도회 총무부장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매 순간 지혜로운 판단으로 도량을 수호하고 스님들을 외호하겠다. 내가 한다는 상을 세우지 않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공심으로 행하며 공용·공식으로 부처님 심부름을 잘 해 나가겠다"고 발원했다.

입재식 이후에는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의 특강 '마음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진행됐다. 혜솔 스님은 대행 선사께서 법문에서 말씀하신 마음공부의 이유를 설명하며 세 가지 의미를 전했다.

이에 대해 혜솔 스님은 "첫째는 우리가 무명과 악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며, 둘째는 세상만사가 하나로 돌아가니 둘이 아닌 도리를 깨닫기 위함이다. 셋째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마음의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이 우주의 이치를 터득하기 위함"이라며 "마음공부는 단지 개인의 수행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깨닫고 서로를 이롭게 하며 우주의 이치를 알아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한마음의 꽃을 피우며'를 주제의 조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대행 선사와의 인연, 생활 속에서 만나는 법문, 신행회가 나아갈 방향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신행을 격려했다. 저녁에 진행된 촛불재에서 참가자들은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푸르게 살라' 노래와 함께 이어진 의식 속에서 참가자들은 수행자의 삶을 다시 다짐했다.

수련회 둘째 날에는 보물찾기 프로그램과 조별 신행담 발표, 선법가 배우기, 선원 조직 및 부서 소개, 주지 스님의 총평이 이어졌다.

불기협 회장에 윤호섭 BTN 차장



한국불교기자협회는 3월 9일 서울 종로 전법회관 3층 보리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에 윤호섭 BTN불교TV 보도국 차장〈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부회장에는 김내영 현대불교신문 차장, 부장단에는 총무부장 박성현 BTN불교TV 기자, 재무부장 이지윤 BTN불교TV 기자, 홍보부장에 유화석 법보신문 기자가 선임됐다. 임은호 기자

'힙한 불교' 여행박람회서 만난다

3월 19~22일 코엑스 마곡
템플스테이 등 체험 부스
선재 스님 사찰음식 시연도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 마곡에서 열리는 '2026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문화사업단은 이번 박람회에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불교문화 체험을 아우르는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개막일에는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시연회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 문화사업단은 '일상을 넘는 여행, 지역에 남는 여행'이라는 주제에 맞춰 전국의 템플스테이를 소개한다.

현장에서는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여행 포토존', '템플고시·사찰음식 퀴즈', '연꽃등·단주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람객들이 템플스테이와 전통불교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박람회 개막일인 3월 19일 오후 3시부터 3시 30분까지는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시연회가 진행된다. 이번 시연은 개막식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되며, 시연에서는 봄철 식재료를 활용한 사찰음식의 의미와 조리과정을 현장에서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문화사업단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그리고 불교문화 체험을 한 자리에서 소개함으로써,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안하고 전통불교문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일본에 등장한 로봇 스님 '붓다로이드'

초기불교 경전 학습 AI 탑재
스님 돕는 휴머노이드 로봇

부처님 가르침을 학습한 인공지능(AI)을 탑재하고 실제 스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신도들을 맞이하는 로봇 스님 '붓다로이드'가 일본에 등장했다. 지난 2월 25일 일본의 'NHK 뉴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들은 교토에서 공개된 인간형 로봇 승려 '붓다로이드'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일본 교토대 구마가이 세이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2월 25일 교토에 소재한 사찰 쇼렌인(青蓮院)에서 공개발표 행사를 갖고 붓다로이드를 공개했다. 붓다로이드는 중국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기체를 기반으로 한 인간형 로봇으로 초기불교 경전을 학습한 생성형 AI인 '붓다봇 플러스'가 탑재됐다. 이 AI는 지난 2023년 구마가이 교수팀이 개발한 것으로, 개발 당시에도 불교형 AI를 통한 사람들의 고민 상담과 조언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특히 탑재 AI 개발을 주도한 구마가이 교수가 불교학 전공자이자 정토진종의 스님이어서 타 AI에 비해 불교적인 내용이 더욱 정확하다는 강점도 있다. 이번 붓다로이드에 탑재된 AI는 최신 챗GPT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고민에 경전 문구를 인용해 답하고 해설을 덧붙이는 기능을 갖췄다.

이날 공개 시연에서 사무에(事務衣)라고 하는 일본의 승복을 입은 모습으로 등장한 붓다로이드는 스님들의 진중한 걸음걸이, 합장예배, 가부좌와 같은 행동을 자연스럽게 구현했다. 이어서 구마가이 교수가 로봇에게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고민을 털어놓자 붓다로이드는 탑재된 음성대화 기능을 통해 "상대와의 거리를 다시 살피고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라"고 답한 뒤 합장했다.

시연 행사에 참여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로봇은 실제 스님들이 해 줄 만한 응답을 내놨다. 한 기자의 "가지고픈 물건이 너무 많아 곤란하다"는 질문에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바라보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이미 일본에서는 기존에도 다양한 종교 로봇이 개발된 바 있고 실제 사찰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나, 인간과 유사한 전신 동작과 자연스러운 음성 대화가 동시에 가능한 AI 인간형 로봇은 드물다. 연구팀은 장래적으로는 실제 법회나 기도법요에서 스님을 보조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개발해 탑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마가이 교수는 "현재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출가자도 대폭 감소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스님이 상주하지 않거나 폐사하는 곳도 늘고 있다. 붓다로이드는 기존 일본의 종교문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구마가이 교수가 스님과 대화하는 붓다로이드를 보고 있다. 사진 출처=추니치 일보

사찰음식 Korean Temple Food

2026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사찰음식 소임자 교육



● 사업명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사찰음식 소임자 교육

● 교육일정

장소	유형	교육일정	강사	인원
세종 광제사	당일	3월 20일(금)	향밀스님	20명
평택 수도사	1박 2일	3월 27(금)~28일(토)	적문스님	20명
수원 봉녕사	당일	4월 4일(토)	여거스님	20명
서울 진관사	당일	4월 7일(화)	법해스님	20명
대전 영선사	1박 2일	5월 2일(토)~3일(일)	법송스님	20명
대구 동화사	2박 3일	5월 10일(일)~12일(화)	혜범스님 형민스님	20명
장성 백양사(천진암)	1박 2일	7월 6일(월)~7일(화)	정관스님	20명

※ 상기 일정 및 참여 인원수는 변경 가능

● 교육대상 전국 사찰의 사찰음식 소임자(원주스님, 공양간 소임자 등) 및 템플스테이 실무자

● 교육내용 사찰음식 소임의 이해 및 스님이 알려주는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사찰음식 레시피

● 신청기간
2026년 2월 26일 ~ 각 교육 정원(20명) 마감 전까지

● 신청 방법
이메일(wonseok@templestay.com)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 사찰음식 홈페이지(www.koreatemplefood.com) → 문의 및 안내 → 공지사항

● 참가비 무료

● 문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팀 / 02-2031-2051

● 안내사항
1) 정원 초과시 사찰별 참여인원 제한
2) 사찰음식 소임자 교육은 연 1회(1인 기준) 참여 가능
※ 중복신청 불가 ※ 사찰당 3명까지만 신청 가능
3) 교육시간 - 2박 3일형 : 5회 교육(2박 3일형은 템플스테이 사찰만 접수 가능)
- 1박 2일형 : 3회 교육
- 당일형 : 2회 교육
※ 1회당 3시간 교육 진행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